

## 랑송 문학사(文學史)의 방법(方法)

자연과학이 그 가장 경탄할 만한 발전을 수행한 19세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몇 번이나 문학사에 과학적 지식의 견뢰성을 부여하고, 취미와, 인상의 전단(專斷)과, 독단적 판단의 아프리오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연과학의 방법을 문학사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문학사를 왜형(歪形) 내지 훼손했을 뿐으로, 이 노력은 실패에 돌아가고야 말았다. 이에 랑송은 문학사를 자연과학의 방법 위에가 아니라 문학의 본질에 즉한 역사적 방법 위에 세우려고 한다.

랑송에 의하면 문학사는 판 모든 역사와 한가지로 일반적 사실에 도달하여 대표적 사실을 추출하고, 일반적이요 대표적인 사실간의 연쇄 관계를 지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결국은 역사적 방법이다. 그러나 본래의 역사가 보통 취급하는 재료와 문학사가 취급하는 재료와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위가 있어, 이곳에서 본래의 역사와 문학사와의 사이에 차위가 생긴다.

역사가의 대상은 지금은 약간의 징후나 잔존물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관념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학사의 대상은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과거로, 과거인 동시에 현재다. 역사가의 재료가 사멸하고 냉각한 고문서의 기

록이라든가, 왕조의 법규라든가, 건축의 계산서라든가인 데 대하여, 문학사의 재료는 언제나 생명을 보존하고 능동적인 성질을 구유하여, 인류에 대한 미적·정신적 양분(養分)의 무진장인 가능성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이다.

이와 같은 일반 역사의 대상과 문학사의 대상과의 성질의 차위에서 문학사의 방법이 규정된다. 그런데 문학사의 대상이 일반 역사의 대상과 달라,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그리고 최초의 독자를 감동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감동시키는 작품이라는 그 점에 또한 문학사에 대한 안전도 위험이 있다.

우리에게 대한 「특수적 사실」인 작품의 이 감성적·미적 성격은 우리의 심정과 상상과 취미를 격발하지 않고는 두지 않는 것이므로, 작품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반응을 말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 개인적 반응을 그대로 보존할 때에는 그 작품에서 얻는 내적 반응 이상의 것을 말할 염려가 있으므로, 문학사가는 작품을 읽을 때에 자기의 속에 생기한 것 이외는 결코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가는 한 문헌을 앞에 놓고, 그 문헌에서 사인적(私人的)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한정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작품의 정서적·미적 가능성은 이런 사인적 요소 속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므로, 문학사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역사가가 일반적 사실을 구하고, 개인이 집단을 대표하거나 동향을 변경(變改)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외에는 거의 개인을 취급하지 않는 데 대하여, 문학사가는 개인 속에 머문다. 감각, 정열, 취미, 미 등은 개인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학사는 그것과의 등가물 없고, 공통점 없는 독자적인 모든 현상, 즉 모든 개인적 독창성을 결정하려고 요망한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문학사가의 연

구는 개인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무리 독창적인 작가라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은 전대에서 예금받고 현대에서 집금할 것이므로, 그의 진정한 독창성을 발견하려면 그의 속에까지 연장해 온 과거와 그의 속에 침투해 온 현재를 알아, 이런 이질적인 것을 전부 그에게서 분리하여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적 천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은 천재를 독립시키는 독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자성 속에 있는 한 시대와 한 단체생활을 일신에 모은 상징성과 대표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사가는 대 작가 속에 구현된 전 인류를 식별하고, 그들에 의하여 방향과 정점이 표시되는 인류적·국민적 사상과 감성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문학사가는 상반하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성을 이탈시켜서, 이것을 간략할 수 없고 분해할 수 없는 유일한 양상 속에 표명하는 동시에, 일단체의 대표자로서 출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특수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한 걸출한 작품 속에 집단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과의 함유량을 결정하고, 천재를 하나의 총계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으로 보고, 천재를 범용한 대중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고, 그에게 대중을 표현시키려고 함에는 실로 많은 곤란이 있다. 그런데 이 곤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관찰하지 않고 상상하고 느낄 때에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문학적 작품의 자연적·정상적 효과가 독자의 정신 속에 강렬하고 주관적인 변환을 야기하는 데 있다. 이에 문학사의 방법은, 인식을 수정하여 그곳에서 주관적인 모든 요소를 청소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학적 원전이 역사적 문헌과 다른 점은 그것이 유발하는 미적·감정적 반응에 있으므로 이 청소를 너무나 과도히 행사

해서도 안 된다. 이에 인상주의는 언제나 문학사의 근거에 황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사가는 문학사의 방법에서 인상주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혼동하지 않고, 느끼는 것이 아는 것의 정당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상주의를 적당히 조정하도록 힘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적 방법의 최고의 명령은 알아야 할 사상의 성질에 따라 아는 수단을 조직하기 위하여 먼저 정신을 대상에 복종시키는 것이므로, 인상주의도 적당히 조정할 때에는 과학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사에 있어서 인상주의를 적당히 조정하기 위하여는, 문학사가는 자기의 인상을 판별하고, 평가하고, 검사하고,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문학사에 있어서 인상주의 사용의 네 조건이다.

이상에서 문학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속과 방법으로서 자발적 인상과 반성적 분석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한 원전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정신의 작용을 조정하고 검사하여 판단의 독단을 감소하기 위하여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문학사가는 그것을 위하여 고본(稿本)의 지식, 서지학, 연대학, 전기, 원전비평 등의 종속과학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탄 과학, 주로 언어사, 문법학, 철학사, 과학사, 풍속사 등을 그때그때에 응하여 종속과학으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개의 특수 연구에 있어서 주제의 요구에 응하여 인상과 분석을 탐구와 검사의 정확한 수속(手續)에 의하여 배합하여, 여러 가지 종속과학을 적당히 간섭시켜 각각 그 분야에 응하여 정확한 지식을 성취시키는 데 공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한 원전을 충분히 알고, 그것의 인상과 관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학사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문의 제기과 조작을 한다.

1. 원전은 진정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진된 것인가. 혹은 진위

불명한 것인가.

2. 원전은 변화도 훼손도 없이 순수하고 완전한가.

3. 원전의 연대는 언제인가.

4. 원전은 초판에서 저자가 낸 최후판에 이르는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또 그 이문(異文) 중에 어떠한 사상과 취미의 변화가 있는가.

5. 원전은 최초의 구상에서 초판에 이르는 동안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초고가 보존되어 있다면 그것들 중에 어떠한 취미 상태, 어떠한 예술적 원리, 어떠한 정신적 노고가 표명되어 있는가.

6. 원전의 문학상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어구와 표현법과의 의미를 언어사와, 문법학과, 역사적 조사법에 의하여 확정한다. 장구(章句)의 의미를 은암(隱喑)의 관계와 역사적·전기적 암시를 천명하여 확정한다.

7. 다음에 원전의 문학적 의의, 즉 지적·정적·예술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언어의 사인적 사용법과 동시대인과의 공통적 사용법과를, 그리고 개인적인 의식상태와 공통적인 느낌과 생각을 구별하고, 저자의 지적 생활의 소위 토대를 이루면서도 표현하지 않고도 저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또 그 당시에 이해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도덕적·사회적·철학적·종교적 표상과 개념과를, 사상의 일반적·이론적인 표현 하에 식별하려고 한다.

8. 해(詒) 작품은 어찌하여 제작되었는가. 어떠한 사태에 대한 소설의 반동에서인가. 또 어떠한 제재를 가질 것인가.

9. 작품의 성공은 어떠했는가. 또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이상이 한 문학작품에 관한 정확 완전한 지식—사실에 있어서는 결코 완전하지 않으나, 다만 될 수 있는 한 불완전하지 않은 지식—이 추출되는 주요한 조작이다. 여기서 그 작자의 탄 모든 작품에도 똑같은

수속을 반복한 다음 판 모든 작자의 작품으로 옮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 작품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각각 분류하여, 형식의 연락에 의하여는 양식(장르)의 역사를—사상과 감정과의 연락에 의하여는 지적·도덕적 조류의 역사를—각각 상위한 양식과 정신을 가진 모든 작품 중에 공존하는 어떤 색채와 어떤 기술에 의하여는 취미의 역사를 설정한다. 이렇게 하여 완전한 문학사가 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나, 한층 좋은 문학사가 되리라는 것은 랑송과 함께 우리도 인정할 수가 있다.

《인문평론》, 2권 2호, 1940. 2. 1)